

요한계시록 해설

요한계시록 해설 1: 기록 목적 및 개괄적 내용p.2

요한계시록 해설 2: 계시록에 대한 오해의 대표적인 내용p.5

요한계시록 해설 3: 계시록 오해의 대표적 특징p.7

요한계시록 해설 4: 계시록 해석의 여러 관점들p.9

요한계시록 해설 5: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p.12

요한계시록 해설 6: 상징적으로 사용된 숫자들p.14

요한계시록 해설 7: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p.16

요한계시록 해설 8: 천상의 예배가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p.17

요한계시록 해설 9: 144,000명과 수없이 많은 무리들p.21

요한계시록 해설 10: 칠년 대환난p.23

요한계시록 해설 11: 종말적 재앙들의 특징p.25

요한계시록 해설 12: 종말적 재앙들이 나타나는 모습p.28

요한계시록 해설 13: 두 증인p.31

요한계시록 해설 14: 메시아를 낳는 여자.....p.34

요한계시록 해설 15: 용과 짐승들p.36

요한계시록 해설 16: 666p.38

요한계시록 해설 17: 바벨론의 멸망p.40

요한계시록 해설 18: 아마겟돈 전쟁p.43

요한계시록 해설 19: 천년왕국p.45

요한계시록 해설 20: 휴거와 재림p.47

요한계시록 해설 21: 마지막 심판p.49

요한계시록 해설 22: 새 하늘과 새 땅p.51

요한계시록 해설 23: 새 예루살렘p.52

요한계시록 해설 24: 계시록 연구를 위한 자료들p.54

요한계시록 해설 1: 기록 목적 및 개괄적 내용

계시록은 왜 기록된 것인가요?

요한 계시록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영적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말세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최초의 신약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고전 10:11; 벧전 1:20; 요일 2:18). 즉, 계시록은 지난 2천 년 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7년 대환난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묘사하고 있는 20-22장을 제외한 계시록 전체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의 개괄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1장은 계시록의 서언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위엄과 영광이 풍성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분의 명령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영적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2-3장에서 계시록의 수신자로 나오는 일곱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와 영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55번이나 나오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일곱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지난 2천 년 교회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현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배교하거나, 종교화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단의 거짓말에 속아 순결함을 상실하거나,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무너지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장에서는 이런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늘의 교회 모습과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교회는 순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와 성도가 경험하는 이 땅의 상황과 하늘의 영적 상황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인해 이

땅의 어렵고 유혹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온전한 소망과 안전을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교회의 참된 사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하늘의 예배를 통해 보여줍니다.

6, 8, 9, 16장 등에 등장하는 인, 나팔, 대접 재앙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 심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재앙이 따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지난 2천년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임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역사 그리고 자연 재해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재앙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도래할 완전한 종말과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재앙과 심판에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동일하게 노출됩니다. 세상에게는 이런 재앙이 심판이요 형벌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은 죄악을 벗어나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7장에서 영적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교회를 144,000명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설명합니다. 144,000은 구약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12사도에 구약에서 군대를 계수할 때 사용한 숫자인 1,000을 곱하여 만들어진 숫자입니다($144,000=12 \times 12 \times 1,000$). 즉, 교회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교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10장에서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습니다. 이것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씹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부 기록된 복음으로 그것을 먹을 때는 좋지만 그것을 소화하여 전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복음을 받아먹은 이유는 성도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돌이키게 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 남아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교회의 사명을 두 증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영적 교회는 측량을 통해 보호되지만 지상 교회는 측량에서 제외되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은 영적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교회를 공격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절대로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마쳤을 때 교회는 세상에 의해 죽임

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교회는 하늘로 들림을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12장은 여자로 묘사되는 교회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교회 시대인 종말에 이 땅에 남겨져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자로 양육 받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늘에서 권세를 빼앗기고 이 땅에 내어 쫓깁니다. 지상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3장은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하고 유혹하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세력은 마치 성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종교적이며 사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의 하수인 들인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 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이들의 핍박과 사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사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거짓된 삼위일체로 사람들을 속이고 노예로 삼지만 이런 마귀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666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줍니다.

14, 15장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여 그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순결한 영적 교회는 새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공의로의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앞으로 임할 심판을 추수로 묘사합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그 세력들의 온상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16장에서 대접 심판으로 묘사된 바벨론의 멸망은 **17, 18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쾌락주의, 경쟁주의와 같은 세속적인 영향력과 그 매개체들을 상징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며 화려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멸망받을 이런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9-20장은 심판자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묘사합니다. 19장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될 신부요 전사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군대로 묘사됩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로 패배하게 됩니다. 20장에 나오는 천

년 왕국은 교회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섬김과 죽음으로 왕 노릇 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전사로 임하셔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불 못에 던지시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백보좌 심판이 벌어집니다.

21,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하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신부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예고되었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언약의 궁극적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오며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2: 계시록에 대한 오해의 대표적인 내용

계시록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는 무엇인가요?

계시록은 가장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의 방해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계시록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사탄은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계시록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카톨릭의 의도적 조작에 의해 조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계시록의 짐승과 용을 교황과 카톨릭 세력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카톨릭은 계시록을 미래주의적이거나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은 예수회 사제인 리베라(Robera)가 1603년 최초로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주의적 해석은 1614년에 알카자르(Alcazar)라고 하는 예수회 사제가 최초로 제안한 것입니다. 예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 운동에 반대하기 위하여 카톨릭에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들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시록을 과거주의적이거나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없었습니다. 예수회는 이 이론들이 교황 및 로마 교회를 대항하는 개혁주의의 계시록 해석을 제거하는데 아주 유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계시록을 미래주의적이거나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도록 오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계기는 1830년대에 영국에서 있었던 다비(Darby)로부터 시작된 세대주의적 해석의 영향입니다.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는 성경을 역사적 시대의 순서로 해석하면서 특별히 계시록을 7년 대환난 때에 있을 사건들로 미래적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을 역사적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로 생각합니다. 다비는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다비의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 미래주의적 해석은 기독교에서 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 해석은 다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언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비의

제자인 스코필드가 스코필드 관주 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 등의 책을 통해 이론화시킴으로 20세기 초의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훼손합니다. 한국 교회의 계시록 해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해석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2-3장의 일곱 교회가 2천년 역사 가운데 시간 순서대로 나타난 교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의미하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 시대의 교회 등으로 해석하며 현대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앞서서 예수님이 공중에서만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휴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동안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6장부터 시작되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지상 교회를 묘사하는 계시록의 여러 내용들이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44,000명도 유대인이며, 두 증인도 유대인이며, 용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도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의 멸망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7년 대환난 끝에 아마겟돈 전투가 벌어지고 대부분의 인류가 죽는 대재앙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마귀는 천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고 이 땅에서는 천년 동안 성도들이 남은 세상 사람들 위에 왕 노릇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눌러 살던 세상 사람들을 모아 마지막 전투를 벌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전부 사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백보좌 심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 영원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다음의 세 가지 점 만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해석은 계시록을 7년 대환난이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책으로 한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대환난 전이나 중간에 휴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필요 없는 책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이 땅에 휴거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계시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과 교회 시대의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계시록이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두렵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7년 대환난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휴거'라는 단어도 성

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끌어 올려'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신 뒤에 그들을 데리고 다시 천국에 돌아가셔서 7년 동안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이 땅에는 대환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는 목적이 '주를 영접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부분에서 '영접'이라는 단어(헬, 아판테시스)는 고전 헬라어에서 어떤 도시에 새로운 통치자가 올 때 도시 주민들이 전부 성 밖으로 나가 통치자를 환영한 뒤에 통치자와 함께 도시에 들어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도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즉,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잠시 하늘에 올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환난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과 종말을 분리하여 성경의 통일성을 훼손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와 교회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 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 사도가 교회의 문과 기초석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21:12, 14). 또한 하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장로들이 구약의 교회의 수인 12와 신약의 교회의 수인 12를 합쳐서 24명입니다(4:4). 종말의 시기인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혈통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144,000명 또한 유대인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 또한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의 책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자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3: 계시록 오해의 대표적 특징

요한계시록 오해의 대표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함께 계시록에 대한 보편적인 성도들의 오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

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5장부터 22장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모순됩니다. 예를 들면 12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구약 시대의 교회를 묘사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신약 교회 시대까지의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해야 한다면 12장은 현재 계시록 2장의 자리에 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에 끼어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이 묘사하는 어떤 사건이나 정황이 어떤 역사적 사건에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지칭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에 나타난 원리가 다양한 사건에 모두 적용되면서 최종적인 종말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가 실제로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서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종말론적 상황과 앞으로 나타날 최후의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내용을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에만 끼어 맞추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의 사건들을 휴거 전후에 일어날 7년 대환난과 같은 특정 시기에 한정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7년 대환난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문자적인 '7년 동안'에만 환난이 집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7년 대환난이란 말이 나온 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삼년 반, 반 이레 등과 같은 시간의 개념을 임의적으로 조합한 것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시간 개념들은 문자적인 3년 반이나 혹은 7년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지상 교회의 여정이 영적 시각에서 보면 아주 짧은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개념에 대한 오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의 소수들에게만 필요한 책으로 전략시키기 쉽습니다.

네 번째 오류는 계시록의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학 장르에 속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만 익숙한 구약의 단어들로 성도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계시록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과 환상의 이상한 책이지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미지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용이나 짐승을 구체적인 독재자(히틀러, 스탈린) 등으로 해석하거나 용의 뿔을 EC 공동체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을 구약 성경에 대한 도움과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404구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직접 인용(direct quotation)한 구절이 300구절이 넘고 구약의 내용을 암시(allusion)하며 간접적으로 인용(indirect quotation)한 구절까지 포함하면 1,000 구절이 넘습니다. 즉, 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이 구약을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들은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다니엘 후반부, 스가라, 에스겔, 이사야 등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과 그 의미를 잘 모른 채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말씀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류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내용을 반복적이며 점층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예언의 다층적 성취의 측면에서 고찰하며, 신약 시대 교회 전체를 위해 주신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의 상징적 의미들을 이해해야 하며 계시록 해석을 철저히 구약 성경의 이해와 도움을 받아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만이 계시록이 본래 교회에 주어진 목적에 맞추어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계시록을 통해 풍성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4: 계시록 해석의 여러 관점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관점들이 있나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에는 크게는 네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과거주의적 관점(preterist view), 미래주의적 관점(futurist view), 역사주의적 관점(historicist view), 상징주의적 관점(idealist view)입니다. 각각의 관점은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배경 아래서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절충주의적 관점(Eclecticism)이 가장 적절한 해석의 방법입니다. 절충주의를 포함한다면 다섯 가지의 해석 관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과거주의적 관점

과거주의적 관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관점은 요한 계시록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계시록이 A.D. 70년에 모든 성취가 끝

난 것으로 간주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또 다른 과거주의적 관점에는 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관점의 장점은 계시록을 이 책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묵시 문학이기는 하지만 2-3장은 특별히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예언의 다중적 성취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시록을 과거주의적으로만 해석하면 지금의 우리에게서 계시록이 필요 없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2) 미래주의적 관점

미래주의적 관점은 계시록의 예언이 대환난의 특별한 기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관점은 특별히 계시록 4-19장의 사건이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난의 기간에 관한 예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래주의적 관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미래주의적 관점은 개신교가 교황을 뿔 달린 용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예수회 사제인 리베라(Robera)가 1603년 최초로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이 관점은 1830년 대의 다비와 스코필드에 의해서 부활되기 전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해석입니다. 미래주의적 관점은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가장 큰 약점은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1세기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큰 소망을 얻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미래의 특정 시기에 있을 7년 대환난의 기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 역사주의적 관점

역사주의적 관점은 세계 역사를 통해 계시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역사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 2천 년 역사의 사건들과 계시록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건과 연대를 짜 맞추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점은 그 근거가 가장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상징주의적 관점

계시록을 해석하는 상징주의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징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해석법입니다. 반면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상징주의적 관점은 묵시적으로 기록된 계시록의 내용이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구약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징주의자들은 계시록의 내용이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시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주의적 관점은 계시록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과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대 교회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그 성취의 측면은 약합니다. 또한 미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림 전의 특정한 시대에 나타나게 될 종말의 클라이맥스(climax)에 대한 집중도도 약합니다.

5) 구속사적 절충주의의 관점

사실, 절충주의는 발전된 상징주의(developed idealism) 혹은 변형된 상징주의(modified idealis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충주의는 구속사적(redemptive historical)인 초점에 강조점을 둔 상징주의적 해석입니다. 즉,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속사(salvation history)를 종합적이며 상징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이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 교회의 양육과 보호, 교회의 완성 등이 그림 언어로 제시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절충주의는 계시록 2-3장의 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역사적 정황에 맞추어 해석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 또한 교회 시대 전체에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또한 4-18장까지의 내용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발전적 개괄 방식(progressive recapitulation)'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발전적 개괄 방식'은 계시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발전된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인, 나팔, 대접 제양 등은 전부 교회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종말적 심판을 여러 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존재하는 여러 번의 큰 전쟁들(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등)도 실제로는 하나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계시록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승리가 확실하며 반드시 성

취될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변형된 상징주의 혹은 절충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계시록은 구약의 언어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구속사를 재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또한 구약의 예언서와 같이 예언적 원근법에 의해 예언의 반복적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의 꾀박과 유혹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말로 말세의 시기이며 또한 계시록의 도움과 약속이 매일 필요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5: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

요한계시록은 어떤 역사적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인가요?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일차적인 수신자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A.D. 95-96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당시는 도미티안(Domitian)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안은 A.D.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둘째 아들이자 그의 형인 디도 황제가 갑자기 죽자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됩니다. 디도 황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장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안과 디도는 군인으로서 전력을 쌓은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도미티안은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도미티안이 황제가 된 이후에 다른 황제들보다 더 강력한 무력 통치를 행한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유약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전제 군주적인 무력 통치를 행했던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점차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서 통치 말년에는 자신을 '주님이며 하나님(Dominus et Deus)'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이 호칭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것을 거부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때 사도 요한도 밧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당시는 로마의 절대적인 통치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A.D. 70년의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으로 역사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문

명화된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도미티안의 통치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은 점차 황제 숭배를 강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요한 도시들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동전에는 '황제가 주님이며 하나님이다'라는 글이 새겨졌습니다.

종교적으로 로마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도 신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 섬기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행 17:3). 각 도시마다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이 이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은 풍요와 보호를 약속했고, 쾌락을 공식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창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의 여사제들은 음행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들은 따로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도시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양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축제들은 인간들의 쾌락과 방탕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신을 섬기고 강한 윤리를 주장했던 기독교인들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상업이 발전한 모든 도시에서는 상업 조합인 길드 조직이 발전되었습니다. 길드는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 끼리 모인 상업 협동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드 조직은 그들의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그들의 수호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충성을 맹세했으며, 수호신의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길드 조직에서 축출 당했거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업에 종사하던 기독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박해로 재산을 몰수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무일푼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에는 니콜라 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과 같은 교회 내의 이단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영지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사상에 오염되었을 때 그 여파는 교회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로마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우며 평화로운 환경이었던 이 시기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박해가 심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고 교회의 역사가 짧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단들의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점차 박해를 피해 은밀하게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점차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마의 지하 묘지에 생긴 카타콤(catacombs)입니다. 7-20m의 지하에 건설된 카타콤은 길이가 수 백 km에 이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그곳에서 살고 예배하고 모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살도 되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도 키가 120-130cm 밖에는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를 보지 못하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세상이 평화와 풍요와 쾌락을 누리는 뒤편에서 기독교는 가장 모진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런 상황에 있던 성도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6: 상징적으로 사용된 숫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숫자들뿐 아니라 중요한 단어나 구절들이 특정한 횟수만큼만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숫자들과 단어의 사용빈도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숫자들의 상징성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¹⁾

일곱(seven)은 55회나 사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입니다. 일곱과 관련한 대상은 교회, 금 촛대, 별, 영(Spirit), 등불, 인(seal), 빨, 눈, 천사, 나팔, 우레, 머리, 재앙, 대접, 산, 왕 등입니다. 일곱은 구약에서부터 '온전함(perfection)'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칠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창 2:2). 요셉 시대에 이집트에 내린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도 온전한 풍년과 흉년을 의미합니다(창 41:25-26).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칠 배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레 26:21). 이처럼 계시록에서는 일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 하나님

1) 사용된 단어들이나 구절은 원문인 헬라어로 찾아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영어나 한국어 번역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의 찬양의 온전함, 하나님의 영의 온전함 등을 표현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사탄의 세력도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흉내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12:3).

일곱은 숫자만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나 구절의 사용 횟수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4(7×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인'이라는 형태로 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7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린양'은 28번 사용되어 7×4의 빈도를 나타냅니다. 이중에 어린양이 하나님과 함께 사용된 경우는 7번입니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라는 호칭 또한 일곱 번 사용되었습니다(1:8; 4:8; 11:17; 15:3; 16:7; 19:6; 21:22). '성도'는 14번 사용되어 7×2의 빈도를 나타냅니다. '복'은 7번 사용되어 완전한 복의 의미를 전달합니다(1:3; 14:13; 16:15; 19:9; 20:6; 22:7, 14). 그뿐 아니라 5:12과 7:12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서도 일곱 가지 찬양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9:7-10에 등장하는 말들도 일곱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①머리의 금 면류관 ②사람의 얼굴 ③여자의 머리 ④사자의 이 ⑤철 흉패 ⑥말과 전차의 소리를 내는 날개 ⑦전갈의 꼬리와 침). 또한 예언의 성취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곧'이란 단어도 일곱 번 등장합니다(1:1; 2:16; 3:11; 22:6, 7, 12, 20).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일곱 번 나옵니다(1:2, 9; 6:9; 17:17; 19:9, 13; 20:4). 요한은 이런 단어들이나 구절들을 의도적으로 일곱 번이나 칠의 배수로 사용하여 온전함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열둘(twelve)은 23번 사용되었는데 '완전함(completeness)'의 의미와 함께 '다양함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12는 3(하나님의 수)에 4(전체)를 곱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12 지파로 구성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며, 12 사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룸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 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완전함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는 12×2로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부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의미하며 온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넷(four)은 '전체(the whole)'를 의미하기 위해 19번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구의 네 모퉁이는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곱과 넷이 서로 결합하여 온전함과 전체라는 동시적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양'은 28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7×4회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린양의 온전한 통치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이 일곱 번 사용(5:9; 7:9; 10:11; 11:9; 13:7; 14:6; 17:15)되었는데 사람들을 네 가지로 말한 뒤에 그것을 일곱 번 반복함으로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우레, 일곱 대접으로 7×4의 구조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전체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곱 영(the seven Spirit)도 네

번 등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함과 전체적인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어린양에게 돌리는 찬양의 내용이 네 번 나오고(5:13), 청황색 말이 가져오는 심판의 내용도 넷이며(6:8), 천사가 향로의 불을 쏟을 때 나타나는 심판도 네 가지입니다(8:5; 16:18). 또한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의 내용도 네 가지이며(9:21), 바벨론 성 안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악기의 종류도 넷입니다(18:22).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라고 묘사하는 표현도 네 번 등장합니다(4:9, 10; 10:6; 15:7).

십(ten)은 9번 나옵니다(2:10; 12:3; 13:1(×2); 17:3, 7, 12(×2), 16). 2:10을 제외하고는 열 빨 달린 짐승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본래 십의 의미는 '충만함(fullness)' 혹은 '전체(complete)'의 의미입니다. 열 빨은 열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권세)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의 숫자들이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7년 대환난이나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적인 의미와 벗어납니다.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은 계시록이 묵시 문학이라는 특별한 장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묵시적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온전함과 전체성을 책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7: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일곱 교회들을 통해 지상 교회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일곱 교회들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아시아에는 이 일곱 교회들 외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곱 교회들만을 언급한 이유는 일곱이 모두를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일곱 교회들은 사도 요한 당시 현존하던 교회들이었고 계시록에 언급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책망을 받아야 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이 교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2-3장의 메시지를 통해 지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2-3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지상 교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2:4).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많기 때문이었습니다(2:19). 이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유기체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자로 비유된 교회가 사탄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도 이 땅에 남겨진 이유를 '양육을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12:6, 14).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거나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함으로 그 구성원들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세상과 마귀의 핍박과 유혹을 더 강하게 이겨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끊임없는 외부적인 핍박과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환난, 궁핍, 비방(2:9), 핍박(2:10), 순교(2:13), 거짓말(3:9), 시험(3:10) 등의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공격과 고통의 이유는 마귀(2:9-10)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엡 2:2). 마귀는 짐승들로 표현된 영적 매개체나 바벨론으로 표현된 세상적인 매개체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라면 세상에서의 삶이 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일수록 사탄은 더 심하게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요 16:33). 마귀의 공격과 시험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맞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수록 세상에서의 환난과 저항이 더 심해질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더욱 충성할 때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2:10-11).

세 번째는 교회는 계속적인 내부적인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로 가장하는 자들(2:2), 니콜라 당이라고 표현된 이원론을 주장하는 무리들(2:6, 15),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의 유혹(2:14), 윤리와 거룩을 파괴하는 행위(2:20), 영적 부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적인 힘(3:17) 등이 교회를 내적으로 공격하는 영향력들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내부적인 공격이 더 많이 교회의 힘을 빼앗고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준 미달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안식교나 구원파와 같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무리들, 교회내의 물질주의와 기복주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성도들의 삶,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영적 풍요를 잃어버린 모습을 어느 교회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교회는 영적 전투를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 생명, 능력, 열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3:16). 이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참된 부끄러움을 발견하여 회개하며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한 뒤에 믿음으로 잘못된 영향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3:18-21).

지상 교회가 불완전하고, 평화가 없고,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양육을 받아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엡 4:12; 살전 5:23; 뱀전 5:10; 계 12:6, 14). 외부적인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내부적인 잘못된 교리와 영향력과 싸우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천년 역사상 존재했던 지상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싸움에 처하지 않았던 교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교회마다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8: 천상의 예배가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

천상의 예배를 통해 지상의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계시록 2-3장이 지상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계시록 4-5장은 천상 교회의 영적이고 완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 교회의 모습은 이곳 외에도 계시록 곳곳에 나타납니다. 7장에서는 십사만 사천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로 등장하고, 14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을 이마에 쓴 십사만 사천으로 다시 나옵니다(14:1-5). 21장에서는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4-5장에 등장하는 천상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는 이십사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 받으심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영원히 해야 할 일이 예배라면 지상 교회 또한 영원히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통해 지상 교회가 배워야 하는 예배의 모습과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육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취하지 않으시고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은 그것 자체로 영광을 받으십니다(요 4:23-24).

성도 가운데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자아는 늘 자신이 예배를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아를 예배하는 자아 숭배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워십(worship)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가치가 있는'이란 뜻의 worth와 '~할 자격'이라는 뜻의 접미어 -ship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워십'이란 말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높은 자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mammon을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마 6:24). 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제로 돈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자아를 본질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주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십사 장로들과 만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천사들의 예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영존하심, 영광, 존귀, 권능, 지혜 등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지상의 예배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상 교회의 현실은 이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찬양만 하더라도 인간 중심적인 찬양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해야 힘이 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할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웃기고, 교훈을 주고,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복음 설교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처세술, 시국 강연, 문화 강연, 심리 치료법, 윤리 강연 등을 듣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또한 인간의 필요들만

을 나열하는 것이 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형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상 교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상의 예배는 완전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배자들의 모습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 교회들의 대표인 이십사 장로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의 찬양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판에 박힌 똑같은 찬양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4-5장의 다섯 번의 찬양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다양성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됨을 이들의 예배는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배가 획일적인 하나됨(uniformity)이 아닌 다양성이 존재하는 연합(unity)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예배 또한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연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교회의 예배는 다양한 예배 스타일, 여러 찬양의 방식, 다양한 악기의 사용, 예배의 길이의 차이, 예배 순서의 변형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예배의 스타일이나 찬양만을 선호하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더욱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예배의 자극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 교회의 긴 시간 동안 활기 있게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 교회의 전통적인 의식을 중시하는 예배의 스타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현대의 악기를 동원해 현대적으로 부르는 복음송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먼저 마음과 영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예배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를 소개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를 찬양하기 보다는 인본주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하나됨이 깨어진 예배는 참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삶에서의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나 혹은 교회의 공예배 등 모든 예배 가운데 바른 예배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9: 144,000명과 수없이 많은 무리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4,000명과 수없이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4,000명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숫자입니다(7:4; 14:3). 역사상 유행했던 대부분의 이단들은 소수인 자신들의 세력을 144,000명까지 확장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144,000명은 천상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144,000명은 곧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됩니다(7:9). 이것은 144,000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44,000이 어떻게 이루어진 숫자인지 7:5-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들마다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 지파가 모여서 144,000명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숫자 12는 특별히 교회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4-5장에 나오는 24 장로들도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12 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12 사도의 수가 합쳐져 24가 된 것입니다. 또한 21장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도 숫자 12를 여러 번 사용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진주로 된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 문이 있고, 12 천사가 지키고 있으며,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개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고, 성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며, 성곽의 너비는 144(12*12) 규빗입니다. 12는 전부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44,000의 숫자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44,000은 $12 \times 12 \times 1,000$ 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교회의 숫자인 12와 신약의 교회의 숫자인 12에다가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1,000은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했을 때는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민 31:3-4). 즉, 1,000은 전쟁을 위해 선발된 군인들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즉, 144,000명은 모든 교회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임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된 숫자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144,000이 14장에 반복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은 교회가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12-13장 이후에 기록된 장입니다. 지상 교회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짐승들을 통해 핍박과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머리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언정 결코 사탄과 짐승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는 사탄과의 전투를 치루는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144,000이란 숫자가 특별히 사용된 것입니다.

144,000이 전투하는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숫자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7장에

나오는 지파들의 이름 가운데 단 지파가 생략된 사실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레위 지파는 들어가 있고 대신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이곳에 빠지게 된 배경은 바로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단 지파는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기업을 배정받았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며 강력해진 블레셋은 단 지파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공격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지파에 사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삼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삼손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지파 전체의 도움이 없이 늘 혼자 싸웠던 것입니다. 삼손이 죽자 단 지파는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기업을 버리고 가나안 북쪽의 라이스라는 땅을 찾아 지파 전체가 이주를 합니다.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빼앗고 개인 제사장까지 탈취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팔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싸움을 거부하고 가나안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 계시록에서 천상의 교회 이름에서도 단 지파의 이름이 생략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전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이름이 바뀌어 기록된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7:8).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될 때마다 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은 사사기에 그 기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 싸움을 하는 자들로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자 다룹니다(삿 8:1-2). 또한 입다의 승리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전 지파가 멸망당하게 됩니다(삿 12:1-6).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에브라임을 우상 숭배하는 북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는 에브라임의 영적 음행을 계속 질책합니다(호 6:10). 에브라임의 이름이 요셉으로 바뀌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전투하고 싸우는 사명이 있고 그 결과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많은 무

리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144,000명으로 설명되었던 교회는 7장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됩니다.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 4를 만들기 위해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됩니다(7:14). 즉,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영적 싸움을 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늘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7:14). 성도의 구원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서 받게 되는 대우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7:15-17).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보호와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싸운 교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안식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목마르며, 배고프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생수가 되심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땅의 것으로는 계속해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뜨거운 해 아래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배운 자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얻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0: 칠년 대환난

칠년 대환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시록을 오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계시록에 사용된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칠년 대환난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지한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조합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칠년 대환난을 문자적인 것으로 믿는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해석은 계시록을

미래의 특정한 기간을 위한 책으로 만들어 현재에는 필요 없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만 알더라도 칠년 대환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불완전한 지상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지난 2천 년간 계시록은 각 시대의 교회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계시록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계시록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을 미래에 있을 칠년 대환난 기간의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늘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도 카톨릭의 꾀박 가운데서 계시록으로 힘을 얻으며 종교 개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참 교회들이 힘을 내라.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계시록의 메시지를 미래의 특정한 기간에 발생할 사건들로 해석하는 경향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 대에 영국의 다비라는 사람이 집회 중에 예언을 받아 계시록에 관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스코필드는 세대주의적 해석에 바탕을 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내놓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해석은 영국과 미국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당시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성도들은 계시록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한 다른 해석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모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 역사상 아주 최근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석입니다.

칠년 대환난이라는 개념은 계시록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12:14), '천이백육십 일'(11:3; 12:6), '마흔두 달'(11:2; 13:5)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의 '이레의 절반'(단 9:27)과 '한 때 두 때 반 때'(단 12:7)에 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천이백육십 일, 마흔 두 달, 이레의 절반은 전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7년은 바로 3년 반이 두 번 합쳐진 기간입니다. 세대주의자들 중 다수는 7년의 대환난 기간이 전반기의 3년 반의 환난과 후반기 3년 반의 환난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대환난의 기간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중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들도 있고 환난의 강도가 극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반기 환난 때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존재하지만 후반기 환난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숫자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럴싸한 주장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측입니다.

계시록에서 천이백육십 일이 나오는 11장 3절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들이 예언을 하는 천이백육십 일은 바로 앞 절에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마흔 두 달과 같은 기간입니다(11:2). 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이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천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측량의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받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도록 해서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도록 내어줍니다. 즉, 성전 바깥은 세상에겐 핍박을 받도록 허용된 지상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인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세상은 지상 교회를 핍박할 것이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 2절의 마흔 두 달과 똑같은 기간이 13장 5절에 나옵니다. 이 기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허용 받은 기간입니다. 이것은 11장과 같이 지상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 핍박을 받는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장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2장 6절에 천이백육십 일이 나오는데 이 기간은 여자가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는 기간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라고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들(하늘의 존재들)이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거의 비슷한 구절이 12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의 도움을 받아 광야로 가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는다'라고 설명됩니다. 이 여자는 해로 옷을 입고, 발 아래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열 두 별의 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됩니다(12:1). 이것은 요셉의 꿈을 차용한 그림으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로 상징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이 여자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나오는 천이백육십 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는 전부 지상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거치며 양육 받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0 이레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단 9:24-27). '이레'는

숫자 7로 이루어진 '한 주간(one week)'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0 이레는 490(70×7)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70 이레는 7 이레와 62 이레 그리고 한 이레로 나누어집니다(7+62+1). 7 이레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로부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가 나타났다가 죽을 것이 예언됩니다(단 9:26).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69 이레 뒤의 남은 한 이레가 7년 대환난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를 교회 역사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는 남은 한 이레(7)의 중간인 반 이레 즉, 3과 1/2의 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단 9:27). 이것은 로마 제국이 성전을 파괴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반 이레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 이레가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는 3년 반이 아닌 40여 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70이레가 다 채워져야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70이레가 채워지려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반 이레의 기간인 3년 반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70이레가 채워지기 위한 남아 있는 반 이레인 삼년 반은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에서 남아 있는 '한 때 두 때 반'을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단 12:7). 즉, 성도가 받는 환난이 교회 시대를 거쳐서 극에 달하게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가 역사의 종말을 고할 때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또한 계시록과 일관되게 삼년 반이 교회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언급된 반 이레, 삼년 반, 천이백육십일, 마흔 두 달은 전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천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이렇게 짧은 기간인 것처럼 묘사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잠깐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을 대환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에게 속아서 계시록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가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위로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1: 종말적 재앙들의 특징

인, 나팔, 대접 재앙과 같은 재앙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계시록에는 네 가지 종류의 재앙의 사이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 우레'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 나팔, 대접 재앙과 같이 세 가지 재앙의 사이클의 내용만이 나옵니다(10:4). 이런 재앙들이 칠년 대환난 동안 일어날 일들이라면 앞으로 무서운 자연 재해들과 전쟁 등이 영화에서 묘사하듯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무서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들 또한 현재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재앙들은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 강렬하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들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다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들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심판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거의 똑같은 심판인데 그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인 심판도 심판에 대한 묘사가 약간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 심판의 첫 번째 재앙은 흰 말로 묘사된 정복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정복 전쟁은 땅을 파괴하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피 섞인 우박으로 땅의 1/3이 불에 타게 됩니다. 대접 심판의 재앙은 땅에 쏟아져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사이클들의 첫 번째 재앙은 전부 땅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재앙의 패턴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붉은 말이 상징하는 피 흘림(인), 바다가 피가 된 재앙(나팔, 대접) 또한 똑같이 '피'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심판들은 같은 내용을 범위만을 다르게 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이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강화되면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이 전체에 미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층적으로 강화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 또한 이 심판을 함께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종말론적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들은 성도가 휴거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을 성경은 '징계(discipline)'라고 부릅니다. 고전 11:32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

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역이 '판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심판(judgment)'이란 단어입니다.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은 징계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최후에 세상 사람들이 받을 정죄와 멸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가르칩니다(히 12:8). 성도는 심판의 형태로 임하는 징계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옛 자아가 죽는 만큼 새 자아가 성장하기 때문에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이방의 심판에 대한 기록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거친 남은 자들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린 심판으로 인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겔 14:21-23). 이스라엘에 내린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남은 자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심판의 형태로 내리는 여러 가지 징계를 경험함으로 거룩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한 자만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심판들은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심판보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들을 묘사하는 여러 현상들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화된 단어 들입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나팔 심판으로 임하는 '햇불 같은 큰 별이 바다에 떨어져 썩과 같이 되어 물 샘의 삼분의 일을 오염시키는 심판'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환경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햇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삿 7:16; 슥 12:6). '별'은 우상 숭배의 대상(신 4:19)이거나 신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사 14:12-14)을 상징합니다. '썩'은 우상 숭배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렘 9:14-15)을 상징합니다. '물 샘'은 영적 생명의 근원(렘 2:13)을 상징합니다. 즉, 세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 지려는 인간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여 우상 숭배자들이 영적 생명력을 얻지 못함으로 고통하게 되는 영적 현상'을 상징화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의 나팔 심판으로 임한 황충의 심판만 하더라도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황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시 78:46; 율 1:4). 황충이 사람들을 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사망의 '썩'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고전 15:56).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죄

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쏘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죄악의 현상은 욕망의 표출로 나타나는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도 바로 황충의 쏘을 받아 고통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딤후 6:10). 이처럼 마귀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통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도구로 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화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심판들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특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인한 심판은 인류 역사 가운데 물리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앙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임하는 심판은 현실 가운데 그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2: 종말적 재앙들이 나타나는 모습

인, 나팔, 대접 재앙과 같은 재앙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인, 나팔, 대접 재앙과 같은 종말론적 재앙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의 영역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면 인의 심판이 묘사하는 전쟁, 살육, 기근 등으로 인한 인간들의 죽음은 교회 시대 내내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전쟁과 살육과 기근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만큼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재앙들이 점점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세기만에 일어난 2천만 명 이상의 대량 사망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19년 전후의 스페인 독감으로 2500만에서 5천만 명 사망, 1차 세계 대전으로 2천만 명 사망, 2차 세계 대전으로 5천만 명 사망, 스탈린이 피의 숙청을 통해 2천만 명 사망, 중국의 공산당 집권 이후 문화 혁명까지 2600만 명 사망, 1960년 전후의 중국 북부의 기근으로 3천만 명 사망, 1980년대 이후 AIDS로 23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질병, 기근 등으로 말미암은 인간들의 죽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교회 시대 내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 심판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들은 계시록만이 아닌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팔 심판의 두 번

재 재앙인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은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지화한 것입니다(8:8). 이와 같은 멸망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렘 51:25).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벨론은 평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의 산' 혹은 '불 탄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벨론의 신전들이 산과 같은 모양을 한 건축물인 지그라트(Zigrat)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지그라트의 꼭대기에서 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 탄 산'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신전에서 피우던 불이 오히려 그들을 삼켜서 바벨론 전체를 불타는 산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우상 숭배의 파괴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은 세상이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은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광우병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발육을 빠르게 하기 위해 다른 가축들의 뼈와 내장들을 포함시킨 육식성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뇌에 구멍이 생기고 인간에게까지 그 질병이 전파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져온 무서운 재앙의 피해를 인간 자신이 입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기근, 질병, 전쟁들과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팔 심판의 다섯 번째 재앙인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와 황충으로 인한 재앙이 그런 재앙 중의 하나입니다(9:1-11). 이 재앙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통하게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황충의 쏘임을 받은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9:6)라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죽지 못해서 사는 고통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황충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묘사됩니다(사 33:4).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황충에게 쏘임을 받아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현상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은 마치 영적으로 황충에게 쏘여 그 독에 감염된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중독된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독은 영적인 사로잡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

문에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깊이 더 다양한 대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알콜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섹스 중독, 명품 중독 등과 같은 중독들은 저급하고 나쁜 중독으로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관계 중독, 자녀 중독, 돈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명예 중독, 인기 중독, 학위 중독, 취미 중독 등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독이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하여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독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어도 나아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중독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는 파괴적인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중독이 깊은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의 가족도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더 깊은 중독으로 도피합니다. 이런 중독 증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내적으로는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영적으로 마비된 것입니다. 이런 중독 증상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3: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나타나서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미래에 나타날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두 증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2천년 동안 성도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쓰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신약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들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증인 역할을 감당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은 성전 측량에 관해 설명합니다. 성전 측량은 에스겔 40-48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준비되기 위해 보호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갈대였기 때문에 갈대로 성전

을 측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해도 받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지상 교회로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정한 기간이 마흔 두 달입니다. 이것은 바로 3절에서 천이백육십 일이라고 설명됩니다. 이것은 12장의 한 때 두 때 반 때와 같이 신약의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시대 내내 지상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한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바로 그 같은 기간 동안 두 증인은 세상에서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증인 역할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들은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합니다. 촛대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교회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1:20). 감람나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등장합니다(시 52:8). 이들이 '두 명'인 이유는 구약에서 증거가 확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신 19:15). 이들이 베옷을 입은 것은 이들은 세상이 지은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단 9:3).

이들이 권능을 행하는 모습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던 것처럼 이들은 권능으로 땅을 칩니다(11:6). 또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죽이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들도 동일한 권능을 행사합니다(11:5).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한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들은 죄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 또한 세상에 속아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속아 넘어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권세를 행하는 권능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받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18). 또한 이런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짐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16:19). 이런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의 권능은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많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 받게 되는 모습을 통해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들을 죽입니다(11:7). 교회가 세상에서의 증언을 마칠 때는 교회의 세상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마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마지막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구원받게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있다고 설명합니다(20:2). 계시록 20장의 천년 또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박당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마귀의 치명적인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12:9; 골 2:15).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마귀는 잠시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20:7). 바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의 승리는 잠시 잠깐의 승리입니다. 이들은 이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 서로 예물을 보내고 기뻐합니다(11:10). 세상이 교회가 망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들도 삼일 반 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11:11). '삼일 반'은 '한 때 두 때 반 때'와 같은 기간으로 교회 시대 내내 교회는 죽는 모습으로 살게 됨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11:12).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살전 4:17). 그때 세상은 큰 지진으로 심판을 당하고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집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19:21). 또한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불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20:9). 세상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지상에서의 사명을 마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를 두 증인으로 묘사한 이유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의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영적으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권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죄악에서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은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지적하는 교회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날 마치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 죽듯이 세상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교회는 나비와 같이 아름답게 변신하여 지상 교회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과 영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4: 메시아를 낳는 여자

해, 달, 별로 장식을 하고 용에게 핍박을 당하는 여자는 누구인가요?

계시록 12:1에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을 두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나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해, 달, 별’은 요셉의 두 번째 꿈에 등장하는 내용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창 37:9).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해, 달, 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사 24:23; 60:19). 따라서 이 여자는 영광스러운 구약의 교회로 묘사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12:2). 이것은 하와에게 주어진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저주 가운데 숨겨진 약속을 암시하는 것입니다(창 3:15-16).

이 여자에 대한 환상과 함께 큰 붉은 용의 환상이 나타납니다(12:3). 이 용이 ‘붉은 색’을 띤 것은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여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임을 상징합니다(13:10; 16:6; 17:6). 이 용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마귀가 하나님 흥내를 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머리에 있는 일곱 왕관은 세상에 대한 마귀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용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뿔’은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상징합니다(시 89:17; 132:17). 5:6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일곱 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흥내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12:4에서 마귀는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8:10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테스의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귀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함으로써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방해는 역사 내내 계속되어온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인 것,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들은 이런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와 핍박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도는 헤롯이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인 사건에서 정점을 이룹니다(마 2:16). 하지만 메시아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시편 2:9을 인용한 것으로 메시아의

강력한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주권은 재림 때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19:15).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12:6). 이 여자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이처럼 하나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여자가 양육받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천이백육십 일'은 '마흔 두 달'(11:2; 13:5) 혹은 '한 때 두 때 반 때'(12:14)와 똑같은 기간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교회가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꾀박과 유혹이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양육 받아야 하는지는 신명기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했던 이유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그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땅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임을 의미합니다(마 5:3, 5; 11:28-30). 하지만 모든 인간은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첫 세대를 죽여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옛 자아가 세상에서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자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귀의 꾀박이 강력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양육의 내용이며 이것이 성장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지상 교회를 계속해서 꾀박하며 속입니다. 마귀의 속이는 모습은 마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12:15). 마귀의 공격 무기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늘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거짓말을 큰 물로 묘사하며 그것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시 144:7-8).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마 7:15; 24:11, 24; 눅 6:26; 벧후 2:1; 요일 4:1; 계 13:13-14).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듯이 진리로 거짓을 무너뜨리심으로 성도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성경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낮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 것'으로 묘사합니다(12:14).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안음과 같이 안으시며(신 1:31) 또한 독수리가 날개로 품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한 것처럼 묘사한 것(신 32:10-12)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의 꾀박과 유혹이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마 10:28). 하지만 이것을 아는 성도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육신적 생명을 기꺼이 죽는 곳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12:11).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어줄 때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12:11).

요한계시록 해설 15: 용과 짐승들

용과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의 정체에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용에 대해서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찌는 자"(12:9)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뱀'이라고 부른 것은 사탄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일을 함축한 이름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비방하는 자(slanderer)'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으로 '대적하는 자(adversary)'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붉은 용으로 묘사한 이유는 용이 신경화된 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 용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용은 '여의주'라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여의주'는 '다른 사람들의 뜻을 나의 뜻과 같이 만드는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의주는 온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탄의 죄악을 상징화한 구슬입니다. 용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그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언젠가는 찬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나타난 용의 모습에서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 버렸다'(12:7-8)라고 설명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장에는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용이 짐승들로 상징화된 영적 존재들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현재는 쇠사슬로 묶여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20:1-3). 사탄이 자신의 대리인들로 사용하는 짐승들은 두 종류입니다.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열 뿔에 일곱 머리를 가졌고 표범, 곰, 사자와 같은 짐승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13:1-2). 이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 내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13:3). 이 짐승은 교회 시대를 설명하는 마흔두 달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겨 꺾박하고 죽이는 권세를 받습니다(13:5-10).

이 짐승은 교회 시대 내내 권세를 받아 행사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대환난 때 잠깐 나타날 단 한명의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짐승은 세상의 정치와 군사력을 통해 교회를 꺾박하는 영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 성도를 꺾박한 권력들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는 로마가 이 짐승이 상징하는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이런 짐승은 공산주의 세력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와 종교를 통해 기독교를 꺾박하는 이슬람의 세력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꺾박이 사라졌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도 매년 17만 6천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다. 매일 482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1억 명 이상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기독교를 꺾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세상 권력을 빌어 교회와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13:11).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13:12).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이 짐승이 평화와 선을 추구하는 종교적 세력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용처럼 말을 하는 모습은 이 세력은 말과 사상의 힘으로 교회와 싸우고 미혹하는 세력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19:20).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이름인 666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세속적이며 종교적 영향력임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비주의를 의미합니다. 세상 권세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은 힘을 숭배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로 이 시대의 기복주의, 영웅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이름을 가져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물질주의와 같은 사상으로 사로잡아 그런 사상의 주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경쟁에서 낙오케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세력은 시대 정신과 종교적 사상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타락한 기독교 또한 신비주의와 물질적 기복주의의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의 영향력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독교일수록 성령님을 자신들의 축복과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드러납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된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바다의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땅의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흉내 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 연합 세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사탄과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탄은 악한 권세의 사주를 받은 세상 권세나 시대 정신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경우에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바다의 짐승과 같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세력을 상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 이후로 땅의 짐승과 같은 신비주의와 물질주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용과 짐승들을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신비한 기적과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쩌면 땅의 짐승에게 속아서 엉뚱한 신을 숭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듯이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이런 짐승들과의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6: 666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의 이마나 팔에 666을 새기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66이 정말로 바코드(bar code)나 베리칩(veri chip)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을 받았을 때 666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66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요한의 기술 방법과 구약적인 배경 그리고 13장의 문맥 가운데서 이해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6이라는 숫자를 세 번 반복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강화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7은 요한이 계시록에 55번이나 사용하여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6이 '사탄의 수'인 이유는 바로 완전한 7에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도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7이 세 개가 모인 777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반면에 6이 세 개가 모인 666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666은 '사탄이 거짓된 삼위일체를 이루어 교회를 핍박하려는 시도가 아주 불완전하게 끝날 것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666을 13장의 문맥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666은 세속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영향

력을 의미하는 땅의 짐승이 받게 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표'는 물리적으로 인간에게 찍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밝히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누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표로 찍혀져 있지만 이것 또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14:1). 이 표가 이마와 오른 손에 찍히게 되는 이유는 이마는 '지성'을 상징하고, 오른 손은 '행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전부 마귀와 같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명확한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온 가장 세속적이며 마귀적인 사상은 물질주의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구약 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마 6:24; 딤후 6:10). 돈에 대한 사랑은 아주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돈에 헌신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자신의 수치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몸도 팔 수 있고,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친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돈만 되면 윤리를 파괴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공부하고, 돈을 위해 결혼하며, 돈을 위해 일을 합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돈을 통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지배하는 물질주의적인 원리는 사탄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물질주의적 사고를 거부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게 됩니다. 돈에 민감하지 않고, 돈을 포기하고, 돈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희생하고,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경쟁에서 낙오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거나 도전하면 집단적인 왕따나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즉, 666은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표시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66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666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왕상 10:14). 매년 솔로몬이 조공과 세금으로 거두는 금의 양이 666 달란트에 달했습니다. 1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따라서 666 달란트는 약 23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2011년 8월 시세로 금 1kg은 약 6천 9백만 원(\$65,700)입니다. 따라서 금 23톤은 약 1조 6천억 원(약 \$1.5 billion)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부가 엄청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끝난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거느린 엄청난 할렘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 여인들은 솔로몬을 유혹하여 하나님 대신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예루살렘에 이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소유한 엄청난 세상의 부와 명예에 관한 열왕기상 10장의 기록은 11장의 타락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즉, 666 달란트에 달했던 많은 재물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666을 설명하면서 경제와 관련한 묘사를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666이라는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13:17)는 묘사는 이것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탄의 영향력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힘에 대한 갈망과 성취는 결국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사탄은 돈에 대한 사랑과 숭배의 마음인 물질주의를 통해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탄의 시도가 666이라는 숫자에 담겨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폭로되었고 또한 앞으로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666은 이러한 사탄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할 것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는 사탄에게 노예된 거짓된 성도들은 짐승의 표인 666을 받고 돈과 세상의 힘을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에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14:1).

요한계시록 해설 17: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과 그것의 멸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16장 마지막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탄의 멸망이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의 멸망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는 2장도 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그만큼 성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관계가 깊은 것들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252회나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로서 구약에 등장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바벨론에 관한 내용들은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 유다의 멸망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왕하 20:17). 두 번째는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내용입니다(단 4:34-35). 세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

한 내용입니다(사 14:4).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억압했던 세상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에서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벧전 5:13). 로마 제국은 구약의 바벨론 제국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이 결집되고 조직화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이었습니다. 로마는 거의 1천 년 동안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던 유럽과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정치력, 문화, 군사력, 경제력 등은 당시까지 존재하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세상의 힘을 조직화·문명화·정치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형성한 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구체적인 나라와 문명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웠던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표였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로마가 바로 구약의 바벨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세상의 주도적인 나라들이며 세상을 주도하는 문명입니다.

바벨론은 창녀, 큰 음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나라와 문명의 영향력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유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강력한 나라와 문명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17:2). 그 이유는 이 영향력이 강력하고 매력이 있어서 한 번 맛을 들이면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화려하게 보이는 문화와 물질을 상징합니다(17:4). 바벨론이 탄 붉은 빛 짐승은 13장에 나온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문명화된 힘이 연합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17:3, 6).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대마다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영향력을 미침을 상징합니다(17:9-13). 바벨론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17:15).

바벨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이 구매하던 상품들의 목록입니다(18:12-13). 이 목록들은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최고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문화의 특징을 사치, 향락, 소비, 쾌락 등의 단어들로 집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소비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세상의 세력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쾌락과 소비와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중심적인 모든 종류의 세속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사탄의 세력은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분이 일어나 결국 사탄의 세력은 바벨론을 망하게 합니다(17:16). 이것은 사탄의 도움과 능력으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힘이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의 힘과 문화가 멋지게 보이고 영광스러운 이유도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엡 2:2). 하지만 이런 거짓되고 한시적인 영광은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노예로 삼기 위해 사용하는 유혹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부합하는 이런 화려함에 속아서 이런 세상의 힘과 매력을 추구하다가 결국 사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큰 성입니다(17:18).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준비되기 전에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성은 파괴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거룩한 신부로 묘사된 교회와 반대되는 이미지인 음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한 모든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행의 근원인 세상 또한 거룩한 신부가 나타나기 전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19:7-8).

이처럼 바벨론은 강력한 힘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화려한 문화로 성도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조직화된 세상의 나라나 문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이나 로마가 이런 바벨론의 세력을 대표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각 시대마다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주도하던 나라나 영향력들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중세에는 타락한 카톨릭의 세력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타락시키는 바벨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르네상스 운동과 모더니즘이 이런 영향력을 대체했습니다. 19C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린 영국이 그리고 20C에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문화를 전 세계에 과급시킨 미국이 바벨론과 같은 위치에 섰습니다. 현대에는 국가적 영향력 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IT와 인터넷 문명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기업은 종교화되어 전 세계

에 광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국경이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려하고 멋진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 시대의 바벨론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력들은 사람들을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을 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세상의 힘과 문화에 취해서 참 성도됨을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18:4).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8: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이며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겟돈'이란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16:16). 마지막 심판의 사이클인 대접 심판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아마겟돈에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의 대접 심판 때는 왕들을 모으는 일만이 일어나지 실제의 전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묘사하는 19장에 나옵니다(19:17-21). 그런데 같은 전투를 20:7-10에서도 다른 시각에서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의 심판이 묘사되며, 20장에서는 그 배후의 세력인 사탄의 영원한 심판이 설명됩니다.

'아마겟돈'은 영화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지구 종말을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나 전쟁이란 의미로 흔히 사용됩니다. 물론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가져오는 최후의 전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은 지구의 종말은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듯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거나 지구가 핵전쟁으로 멸망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탄의 파멸을 가져오는 최후의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히브리어로는 '므깃도의 산'이란 뜻입니다. 므깃도는 팔레스타인 북쪽의 이스라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평원입니다. 이곳은 고대에 많은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락의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 전투(삿 4-5장), 기

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전투(삿 7장),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전투(삼상 31장) 등이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깃도의 산'은 므깃도 평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갈멜 산'을 이야기합니다. 갈멜 산은 엘리야와 850인의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이 벌였던 영적 전투의 장소입니다(왕상 18장). 즉, 아마겟돈은 이세벨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세력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여호와 신앙이 충돌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음행과 술수를 행하던 자였습니다(왕하 9:22).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술수'는 종교적인 행위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기복주의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바알이 남편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의 원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싸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기복주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도록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여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선지자는 성도들이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교회를 타락하게 했습니다(2:20-21). 예수님은 바로 이 악의 근원이 되는 자와 싸우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2:22-23).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투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기복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무리들의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삼위 일체를 형성했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나온 마귀적인 영들은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여 아마겟돈이란 곳에 모여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부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데 이것은 마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백마를 타고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묘사하는 19장 11-16절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장 강한 전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임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세상의 왕들은 그분 앞에서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찔려 죽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19:17-21).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는 아마겟돈 전투를 사탄의 종말을 가져오는 전투로 다른 시각에서 묘사한 것입니다(20:7-10). 계시록에는 '전쟁' 혹은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폴레모스'가 전부 9회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16장 14절과 19장 19절 그리고 20장 8절에서만 정관사가

함께 사용되어 '그 전쟁(the war)'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도 16장과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들을 점층적으로 강조하며 반복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39장의 종말론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이들 세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게 됩니다(20:9).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였던 사탄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20:10). 이렇게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을 가져오는 전쟁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재림 때문에 무서운 전사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칼과 불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크신 분이신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20:9).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마겟돈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불로 마귀의 세력들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19: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무엇이며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인가요?

'천년왕국(millennium)'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상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20장이 묘사하는 사탄의 사로잡힘, 첫째 부활, 곡과 마곡의 전투가 벌어지는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문자적인 그리스도 통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것으로 현재는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 '이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무천년설로 20장을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에 사용된 숫자들이 전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숫자들 가운데 문자적으로 사용된 숫자들은 없습니다. 요한은 숫자들로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 년은 장구한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교회의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들은 삼년 반이나 마흔 두 달과 같이 짧게 표현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는 천년으로 길게 묘사함으로써 영적인 상대성을 이 숫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 이후에 벌어진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19장에서 이미 발생한 '아마겔돈 전쟁'을 다른 시각에서 묘사한 같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겔돈 전쟁을 묘사한 16장 14절과 19장 19절 그리고 20장 8절에 나오는 헬라이어 '폴레모스(전쟁)'에서만 정관사가 함께 사용되어 '그 전쟁(the war)'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것들이 같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장은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전에 일어난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적 힘의 포기과 희생'이 아닌 '세상적 힘의 과시와 획득'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것은 현세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힘에 눌리고 핍박을 받다가 천년 왕국 때는 그 권세와 힘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왕 노릇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막 10:43-44).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왕 노릇을 하셨습니다(막 10:45). 그리스도인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후일에는 세상 사람들을 힘으로 밟아서 그들을 굴복하게 할 것을 기대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쇠사슬에 매어 천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에서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골 2:15).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탄이 싸움을 하여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으로도 묘사합니다(12:7-9). 마귀는 교회 시대 이전에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였습니다. 아담에게 빼앗은 권세를 잠시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눅 4:6).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의 권세를 다시 빼앗으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창 3:15). 마귀가 무저갱에 사로잡혀 있다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서 허용된 것만을 행하는 지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의 하수인들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교회 시대에도 교회를 시험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성장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입니다(12:6, 14).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미혹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때 마귀의 세력은 큰 권세로 교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11:7).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살아나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11:11-12; 살전 4:17). 그리고 교회와 싸웠던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교회 시대 내내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천년은 마귀의 세력이 마치 줄에 묶인 개와 같이 교회를 위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한 천년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마 4:17). 초림 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그의 영향력과 통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 11:12).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면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맹렬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 12:28). 죄의 세력들이 폭로되고 쫓겨나면서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는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를 받는 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섬길 수 있는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요 15:13).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을 살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제사장과 왕 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입니다(벧전 2:9; 계 20:6).

요한계시록 해설 20: 휴거와 재림

휴거와 재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휴거'가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휴거(rapture)'라는 소설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7년 대환난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고 이 땅에는 무서운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계시록 이해는 바로 이 소설과 같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설 수준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끌려 올리다'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휴거(携擧)'라고 번역하여 개념화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는 일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는 목적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휴거되는 이유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영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도시에 통치자가 왔을 때 모든 도시의 주민들이 성 밖에 나와서 통치자를 영접한 뒤에 그와 함께 도시에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밤중에 찾아온 신랑을 영접하여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마 25:6)와 로마에 간 바울을 영접하러 그곳 형제들이 멀리까지 마중 나왔다가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행 28:15)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는 것은 공중에서 '7년 대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휴거가 7년 대환난 이전에 일어나서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성경 전체가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 24:9; 요 16:33; 행 14:22; 롬 8:35; 고후 1:4; 4:17; 살전 3:3-4; 살후 1:7; 계 1:9; 2:10; 7:14).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요 3:5; 계 20:6). 둘째 부활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생하게 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육체까지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는 둘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땅의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늘로 도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살전 5:1-3). 하지만 재림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만큼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지상 교회가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유혹을 받는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전부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요 6:39). 두 번째는 교회가 거룩하게 준비되기 위한 것입니다(엡 5:27). 이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급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악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죽든지 살아 있던지 어떤 상태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온 천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로 진동할 것입니다(마 24:31).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들의 영혼과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살전 4:16). 그리고 살아 있는 성도들이 뒤를 따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살전 4:17). 이때 교회는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19:7). 예수님과 교회의 영원한 연합이 바로 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의 세력에게는 완전한 패배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세상에 임하실 때 세상은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고 이 땅은 불로 태워지는 과정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벧후 3:10; 계 21:1). 그때 공중으로부터 임하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고 살게 될 것입니다(21:2). 이것이 휴거와 재림을 통해 일어날 마지막 날의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21: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은 어떤 것인가요?

흔히 '백보좌 심판'으로 알려진 최후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7-10절에 나오는 최후의 영적 전투의 결과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선고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끝으로 인간의 역사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새롭고 완전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큰(헬, 메가스)'이란 헬라어는 80번이나 사용되는데 전부 이 땅의 세계나 인생에 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의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큰 것으로 묘사한 이유는 인간은 이해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보좌가 '흰 색'이라는 것입니다. 흰 색은 거룩함과 승리와 공의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 옷을 입습니다(7:9). 예수님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19:11). 또한 흰색은 티끌만한 죄악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공의를 상징합니다(사 1:18). 계시록에서 '보좌'는 36번이나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을 흉내낸 사탄과 짐승의 보좌를 의미하는 두 번(13:2; 16:10)을 빼고는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위대한 거룩과 주권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사라지게 됩니다(20:11).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역창조가 완성되어 이전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은 역창조를 향해 진행되는데 그것이 심판의 시점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역창조의 완성은 계시록 여러 곳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6:14; 16:20). 이것은 단순히 지구의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통용되던 과거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생명책'이 펼쳐지는데 이 책은 단순히 인간의 선악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3:5).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13:8).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귀를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17:8; 21:27).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 불신, 흉악한 행위, 살인, 음행, 점술, 우상 숭배, 거짓말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행이 됩니다(21:8).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비록 악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무죄하다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롬 8:1).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즉, 영적인 사망을 선고받지 않습니다(2:11).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20:14).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은 그 자체가 죽음이며 고통이며 지옥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둘째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을 통한 완전한 생명의 공급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무서운 형벌의 시작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찌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여겨 그의 모든 행위 또한 죄악으로 간주됩니다. 이 땅에서 기회를 상실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22: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오래 전에 예언했습니다(사 65:17; 66:22).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더럽고 추한 것이 불에 타버리는 정결케 하는 과정 갱신을 통해 준비될 것입니다(벧후 3:10, 12).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지구의 물리적 환경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세계를 지배하던 질서가 소멸되고 영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것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영적 질서가 물리적 질서를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이 잠겨 있는 집에 그냥 들어오신 것(요 20:19)이나 제자들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것(눅 24:31)과 같은 일들은 바로 물리적 질서를 뛰어넘는 영적 질서를 잠시 보여준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해서 우주와 지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과거의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창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소멸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깨어진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갱신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의 '새롭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곳의 '새'는 헬라어 '카이노스'를 번역한 것으로 이것은 '같은 물건이 질적이고 내용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한글로는 똑같이 '새로운'이라고 번역되는 '네오스'는 '새로운 물건과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마

9:17). 따라서 '카이노스'가 사용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존재하는 우주와 지구가 완전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행 3:21)임을 설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들이 종노릇하는데서 해방될 날이 이를 것'(롬 8:2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뿐 아니라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체의 몸은 이전의 육신이 변화된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빌 3:21).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육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요 20:27).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또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달라서 알아볼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 질서에 구속되어 병들고, 늙고, 상하는 그런 육체가 아닌 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까지도 갱신되어 영원하게 지속된다면 인간들의 거주지가 될 지구도 회복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날 중요한 변화는 '바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20:1). 여기서의 '바다'는 사탄의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던 어두움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바다는 악의 세력이 거주하는 곳을 상징했습니다(시 74:13). 또한 종종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묘사했습니다(시 89:9). 계시록에서도 바다는 ①마귀적인 세력의 출몰지(12:18; 13:1), ②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나라들(12:18; 13:1; 17:1-6), ③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20:13), ④우상 숭배를 위한 상품이 거래되는 곳(18:10-18)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지 물리적인 바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23: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21:2).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21:3, 9).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21장

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보석과 진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고 가르칩니다(21:9).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름 붙인 이유는 교회는 더러운 세상의 세력들이 모인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18:2).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시 48:1-3).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을 거처서 정결하게 준비된 성도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됩니다(21:3).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 하심은 더 이상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21:4).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로 말미암은 평화를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먼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됩니다(21:9). 이것은 마귀의 신부 노릇을 했던 세상의 세력인 바벨론이 큰 음녀로 묘사된 것과 비교됩니다(17:1). 세상이 주는 힘과 쾌락에 빠져 세상과 연합한 자들은 그와 음행을 함으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고 순결하게 준비한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21:2, 10). 첫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변화되어 구름 위로 끌어 올려져 가기 때문입니다(살전 4:17; 계 11:12).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21:2, 10).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지상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며 완전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4-5; 7장; 14:1-5; 15:2-4).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연합을 이루어 이 땅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숫자 12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12개의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2명의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은 12개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으로 12×1,000으로 이루어진 수이고 성곽의 넓이는 144 스타디온으로 12×12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

는 숫자인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12 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의 넓이와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인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대하 3:8). 대제사장은 12개의 보석에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단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출 28:21).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도 진주문에 12 지파의 이름들과 그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에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이 거룩하게 된 그의 교회와 영원히 연합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영원히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 되셔서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24: 계시록 연구를 위한 자료들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까지 계시록에 관해 나온 한글 서적들은 대부분 개인의 목상 수준이거나 설교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한국 교계에 소개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영향으로 그동안 건강한 관점을 제시한 설교집들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영감과 계시로 계시록에 관한 비밀들을 풀었다는 책들은 웬만한 무협지나 공상과학소설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계시록의 전문가인 리차드 보컴(Richard Bauckham) 밑에서 공부한 이필찬 교수님이 계시록에 관한 개론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성경과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이 책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 방법으로 가득한 책들을 여럿 보는 것 보다는 이런 책 한 권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이 책은 계시록의 구조와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영어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은 반 포이트레스(Vern Poythress)의 "The Returning King"이란 책도 읽어볼만 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계시록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개론서는 계시록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설한 좋은 책은 그레이엄 골즈워드(Graeme Goldsworthy)의 "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골즈워드가 쓴 다른 '복음'과 관계된 책들처럼 구속사의 관점에서 계시록 또한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은 계시록을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합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가 종합적으로 요약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또한 유용합니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이 쓴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란 책도 읽어볼만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내용을 해설한 것이기 보다는 계시록의 이미지와 단어들을 기초로 삼은 개인적 묵상입니다. 말씀을 현대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를 참고로 삼을만한 좋은 책입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씌여진 좋은 설교집으로는 김성수 목사님(남가주 서머나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추천합니다. 2010년 하반기에 두 권(①묵시에게 공격당하는 역사, ②창녀 고멜들의 혼인 잔치)으로 출판된 이 책들은 설교집이지만 깊은 주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적인 상황으로 잘 해설하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집들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무서운 재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 설교집은 현재 교회의 상황 속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아주 잘 정리해 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원하는 평신도나 신학생들 모두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주석집 중에는 이필찬 교수님의 "내가 속히 오리라"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주석이 아닌 주해집입니다. 주석은 책의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며 각 절별로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과 의견들을 설명하고 종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해집은 개요 설명이 생략되어 있고, 문맥 단위로 주해를 하며, 주해자가 결정한 한 가지의 결론적인 해설을 합니다. 이 책을 추천할만한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영어 주석들(아래 추천주석 등)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해집이기 때문에 주해자가 선택한 결론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관한 한글 주석이나 주해집 중에 이런 수준을 가진 책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어로 여러 주석들을 읽고 정리할 수 없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무천년설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개론적인 주석들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론적인 주석으로는 마이클 윌

록(Michael Wilcock)이 쓴 Bible Speaks Today 계시록 주석입니다. 이 책은 한글로도 BST 주석으로 IVP에서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은 아주 간략한 개론적인 주해입니다. 이 주석은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개론적인 주석으로는 레온 모리스(Leon Morris)의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계시록 주석이 있습니다. 이 책은 '틴델 계시록 주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BST보다는 약간 내용이 길고 상세합니다. 평신도 중에 좀 더 깊이 공부할 분들은 이 주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도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형 사이즈의 주석들로 각 절에 관한 상세한 논쟁과 해설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석들입니다. 이 주석들은 영어에 익숙한 목회자나 신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주석 중의 하나는 로버트 마운스(Robert Mounce)의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NT 계시록 주석입니다. 이 주석은 고전적이면서 내용적인 면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쉽게도 전천년설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천년적으로 해설한 주석서들은 20장뿐 아니라 교회 시대를 묘사하는 11-13장의 이해에 있어서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보다는 분량이 많지만 가장 최근의 주석이면서 또한 이전에 나와 있던 주석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이 쓴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NT 계시록 주석도 좋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각 절별로 상세한 해설과 논쟁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한 내용도 이 주석에서는 3-4줄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분적으로는 아주 잘 쓰여졌지만 전천년설의 관점을 취하고 있기 전체적인 구조와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오류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13장에 대한 해석이나 대환난에 관한 주해 등은 전체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적이면서 학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주석으로는 그레고리 빌(Gregory Beale)의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계시록 주석이 있습니다. 이 책은 1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작은 활자를 감안하면 BECNT의 두 배의 분량입니다. 이 책은 계시록에 관한 가장 상세하며 또한 가장 명확한 해석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주석들을 읽다가 해석의 관점이 모호할 때는 이 책의 해석 관점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구속사적 관점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시록의 반복 점층적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상징주의적이고 절충주의적 관점에서 해설을 합니다. 이 주석의 가장 큰 장점은 계시록의 각 절에 관한 구약 인용을 상세하고 철저하게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는 점입니다. 이 주석은 계시록은 구약에 관한 철저한 연구와 바른 해석이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난해한 상징들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많은 자료와 설명입니다. 자신의 결론을 해설하기 전에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전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능숙하고 또한 방대한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것이 가능한 분은 이 책을 통해 계시록에 관한 바른 해석적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형 사이즈 이상의 주석들은 대부분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석들 가운데 David Aune의 **Word Biblical Commentary(WBC)**는 한글로 번역된 학문적인 거의 유일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은 무천년설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WBC** 주석은 학문적인 **reference** 들이 많이 나와 있는 점 외에는 별로 장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의견이나 논쟁점들을 살펴보는 목적으로는 참고할만합니다.

요약하면, 평신도인데 계시록에 관한 개괄적인 관점과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라면 유진 피터슨의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을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구조와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필찬 교수님의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읽으십시오. 계시록의 간략한 내용과 해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마이클 월콕의 **BST** 계시록 주석이나 레온 모리스의 **틴델** 주석을 읽으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복음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은 김성수 목사님의 강해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목회자나 신학생 중에 계시록을 주해와 연구의 목적으로 보시기 원하는 분은 이필찬 교수님의 "내가 속히 오리라"를 읽으십시오. 영어가 가능하면서 부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보길 원하는 분은 그랜트 오스본의 **BECNT**를 읽으시면 됩니다. 학문적인 목적이나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을 배우고 상세하고 정확한 해설을 원하는 분은 그레고리 빌의 **NIGTC** 계시록 주석을 읽으면 됩니다.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책들을 선정하여 공부한다면 계시록이 전달하는 말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